

제주도지역의 기후적특성을 고려한 해양레포츠 활성화방안

양영철⁺, 하해동⁺⁺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the Ocean leisure sport considering Jeju-Do weather characteristics

Young-Chel Yang ⁺, Hae-Dong Ha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국제적으로 해양레포츠의 정책과 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해양레포츠 활동이 지구상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생활양식 그 자체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정중석, 2004).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포츠 여가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유지 증진, 사회적 유대관계 증진 등의 효과로 인해 그 가치와 인식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된 가치관은 교육수준의 향상과 교통시설의 발달 및 핵가족화 추세 등 생활환경의 변화를 만들게 되었다(박명국, 2002). 특히 주5일 근무제에 의한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만한 여건이 아직 국내에서는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현재의 세계적인 관광추세를 보면 과거의 단순한 자연경관이나 문화역사유적 탐방과 같은 정적인 형태의 관광 상품으로는 더 이상 다양해지는 관광객의 취향이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잠재 소비자들이 여행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단순히 보는 관광에 만족치 않고 직접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동적인 관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양명환, 2002).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도의 관광형태를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으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동적인 관광으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의 해양레포츠가 그중 하나일수가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해양레포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런 반면에 가까운 섬나라인 일본은 관광개발 전략의 하나로 관광객의 욕구와 관련하여 종래의 관광 탐 또는 탐방과 같은 비 활동성 관광의 정책보다는 요트, 스쿠버 다이빙, 윈드서핑, 수상스키, 바다낚시 등의 레포츠와 같은 활동성관광의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윤이중, 1999). 특히 여가시간 이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성을 띠는 해양레포츠,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해양레포츠'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레포츠의 수요도 급증하게 되는 실정이며, 아직 우리나라는 해양레포츠의 현실은 외국의 비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특히 4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는 63개의 도서와 253km의 해안선을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갖춘 지역이며, 한라산을 정점으로 산악지대, 광활한 중 산간지대, 수려하고 청정한 해안지대 및 도서지역을 포함한 해상들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양명환, 2002). 또한 해양레포츠 종목이 수

적인 증가와 기후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타 지역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레포츠 인구를 위한 마케팅 및 정보 조사연구도 미비하여 해양레포츠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공업 생산 기반 시설이 열악한 제주도지역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과급효과가 큰 레포츠관광산업의 진흥전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해안일대에 잠재되어 있는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일은 제주도의 관광개발의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해양레포츠 소비자를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도내 해양레포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하여 변화하는 관광추세에 맞추어 도내 각 지역의 기후분석을 통한 적합한 프로그램도입 및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의 관광수요창출과 공업생산 기반 시설이 열악한 제주도지역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해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후 및 지형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제주도의 해양환경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발전시키는 지방화시대를 위한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으로의 기틀을 다질 필요가 있다.

2. 연구 결과

제주도는 2002년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래의 해양, 무역, 휴양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해양개발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해양레포츠 활성화는 사면의 바다인 제주도의 기후 및 지리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해양관광을 위한 유리한 기후 및 지형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주도의 기후에 적합한 해양레포츠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늘어나는 해양레포츠인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움직이는 관광으로 변모하고 있는 제주도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제주도의 해양레포츠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2.1 제주도의 기후 및 지형적 특성은 어떠한가?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의 해륙분포를 보면 지구에서 가장 넓은 태평양의 가장자

+ 양영철(한국해양대학교 해양생명환경학과 해양체육전공),E-mail:ssanai-fe@hanmail.net, Tel: 051)410-4790

++ 하해동(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학과)

리인 북서태평양속에 있으면서 아시아 대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다습한 해양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년 내내 남서쪽에서 흘러드는 따뜻한 적도해류의 지류인 쿠로시아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겨울에 북쪽에서 흘러오는 북한해류나 황해의 찬 연안류같은 한류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주변 해상의 해수면 온도는 북쪽해상(남해안까지)은 가장 낮을 때인 2~3월에 8~14℃, 가장 높을 때는 8~9월에 24~27℃로 교차가 크다. 한편 제주도 남쪽해상(33°N 부근까지)은 낮을 때 14~16℃, 높을 때 27~28℃의 분포가 된다.

기후 분류학상 아열대권에 속하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므로 연중 온난 습윤한 해양성이 강하여 일교차가 육지에 비해 작고, 지표 및 지중 온도가 높아서 겨울철 원예작물의 월동재배 및 아열대과수의 시설재배가 가능하다.

2.2 한반도 내륙지방인 부산, 통영, 완도지역과 북제주지역과 남제주지역의 기후의 차이는 어떠한가?

부산지역의 기후는 2004년도 평균 수온 16.58℃, 기온 14.9℃, 풍속 3.1m/sec로, 통영지역의 기후는 수온 16.60℃, 기온 14.6℃, 풍속 1.5m/sec로, 완도지역의 기후는 수온 15.49℃, 기온 14.7℃, 풍속 3.8m/sec로 측정되었다. 반면 북제주지역의 기후는 수온 18.31℃, 기온 15.5℃, 풍속 3.8m/sec로 측정되었으며 남제주지역의 기후는 수온 19.71℃, 기온 16.2℃, 풍속 3.1m/sec로 측정되었다. 이는 제주도 지역이 한반도의 내륙지방인 부산, 통영, 완도지역보다 연평균 기온이 북제주지역인 경우 0.6 ~ 0.9℃, 남제주지역인 경우 1.3 ~ 1.6℃ 높게 측정되어 해양레포츠 활동을 하기에 기후적인 면에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2.3 북제주지역과 남제주지역의 기후특성에 적합한 해양레포츠는 무엇인가?

북제주지역에 적합한 해양레포츠는 바람을 이용하는 요트, 윈드서핑과 같은 세일링종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남제주지역은 수온과 기온이 높으므로 수중 스쿠버다이빙을 포함하여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등과 같이 수면에서 쾌주할 수 있는 레포츠가 적합하다고 하겠다.

2.4 북제주지역과 남제주지역의 기후특성에 적합한 해양레포츠 활성화방안은 무엇인가?

제주지역의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스쿠버다이빙 종목에서 기후적인 면에서 비슷한 부산, 통영, 완도와 같이 다양한 종목으로 변형하는 것이 제주도의 해양레포츠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동호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지리적 특성이 해양레포츠 활동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북제주지역인 도두항, 이호해수욕장, 삼양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과 남제주지역인 서귀포항, 신양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으로 균형 있게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안도로, 마리나시설과 함께 해양레포츠 관련 시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천혜의 관광도시인 제주도는 사계절 해양레포

츠 활동에 최적이지지만, 북제주지역인 이호해수욕장, 도두항, 협재해수욕장, 남제주지역인 서귀포항, 삼양해수욕장, 신양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등에서 여름철에 해수욕과 낚시를 즐기는 기능과 몇몇 해양레포츠 동호인들이 요트나 윈드서핑 및 수상오토바이 등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해양레포츠 장비들을 접안시킬 계류시설이 없음은 물론 각종 양식시설 등으로 활동구역이 협소하고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제주의 해수욕장 및 소형항만의 수변을 재개발하여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도두항과 서귀포항의 계류시설을 보다 더 개선 보완이 필요하며, 주변의 해양레포츠 장비수리소를 정비 확대하여 임대, 판매, 수리종합센터로 리모델링해야 한다.

둘째, 중문 해수욕장과 삼양 해수욕장은 해양레포츠특구의 명성에 걸 맞는 해양마리나를 건립하고 크루저 요트 계류장을 설치하여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며, 특히 스킨스쿠버교육 전용풀장과 계류장을 설치하여 윈드서핑, 수상자전거, 래프팅, 바나나보트, 바다카누 등을 즐길 수 있게 하여 국제적인 해양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수상레포츠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계류장, 장비보관소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민과의 마찰을 사전제거하고 관계당국의 단속 위주에서 홍보지도의 차원으로 선회해야겠다.

셋째, 이호 해수욕장에는 해양레포츠 종합센터를 건립하여 해양관련 강습회와 수상인명구조 등 교육을 전담할 수 있게 하고, 해상 크루징 루트개발 그리고 범선대회, 용선대회, 수상오토바이 대회 등 국제대회 및 해양성 이벤트 대회를 유치해야한다. 또한 용두암과 탐동을 배경으로 하여 덩기요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의 전용 활동구역 지정 및 계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표선 해수욕장과 신양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의 폭이 넓어 단체활동에 적합지로서 같은 내륙지방인 부산지역의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스포츠체험학습, 수영구생활체육협의회의 주말가족스포츠캠프, 청소년여름해양수련캠프 등과 같은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양종합수련장을 건립하여 학교단위, 직장단위, 가족단위의 수련 체험장이 되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극기훈련과 해양체험수련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도 해양레포츠장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비, 시설 이용과 계류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과 시설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과될 수 없는 문제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레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제1의 과제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관계 당국에서 해양레포츠 사업을 위해 허가조건에서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득해야 사업장 허가가 인가되지만 해양레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수면 점유사용의 허가 대신 다른 활용장의 지정의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활성화의 방안이라고 사료된다.